

《國語學 43》 별쇄본

## 대격조사의 유무와 문장의 계층구조

스가이 요시노리

國語學會

2004.6.

# 대격조사의 유무와 문장의 계층구조\*

—《釋譜詳節》·《三綱行實圖》를 중심으로—

스카이 요시노리(須賀井 義教)\*\*

본고는 중세한국어 문헌인 《釋譜詳節》, 《三綱行實圖》에서 대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환경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釋譜詳節》에서 수집한 용례(대격으로 간주되는 명사구) 2255개 중, 대격조사가 있는 용례가 1537예, 대격조사가 없는 용례가 718예 있었다. 본고에서는 문장의 계층구조(階層構造)라는 관점을 도입하여 수집한 용례들을 검토·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속절(從屬節) 중 명사절(名詞節)이나 관형절(冠形節)과 같이 절(節)의 계층에서 하위에 속하는 절의 경우 그 내부에 있는 명사구에 대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부사절(副詞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태절(樣態節)과 같이 다른 절에 포섭(包攝)되는 절에서는 대격조사가 없는 명사구가 많이 나타났다.

핵심어 : 문장의 계층구조, 절의 포섭(包攝)관계, 종속절(從屬節), 양태절(樣態節)

##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중세한국어<sup>1)</sup>에서 대격조사가 어떤 환경에서 나타나지

\* 본고는 2003년 6월 24일, 2003년도 국어학회 집중강좌(개인논문발표)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일본 東京外國語大學 博士後期課程

않는지 그 조건을 밝히는 데에 있다. 본고에서는 서술어의 형식에 주목하여 절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용례를 분석하였다.

중세한국어에서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그 조건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文法書를 중심으로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조건에 대한 기술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李崇寧(1981:423)은 긴 문장에서 句를 이루는 경우에 격이 생략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긴 문장”이라는 조건이 모호하지만 문장 구조와의 관련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격조사에 한정된 기술이기는 하지만 金英培(1972:249)에 좀 더 자세한 기술이 있다. 《釋譜詳節》권23·24에서 주격조사가 생략된 경우는 모두 單文이 아니라 보다 복잡한 문장의 일부로 成分節을 이루는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지적하였다. 또 金英培(1972:248)에서 제시한 용례 중 관형절에서 주격조사가 생략된 것이 많은데 “冠形節일 때는 언제나 主格助詞가 생략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기술도 있다.

또한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韻律的條件”을 제기한 연구들(李基白 1975, 李崇寧 1981)도 있기는 하나 그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다.

본고에서는 자료를 《釋譜詳節》<sup>2)</sup>로 한정하여 대격으로 간주되는 명사구<sup>3)</sup>를 모두 수집해서 그 용례를 분석하였다. 《釋譜詳節》을 선택한

- 1) 본고에서는 고노[河野六郎](1955:428)를 따라 한국어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古代朝鮮語 諺文창체(1443년) 이전  
中期朝鮮語 1443년부터 1592년(임진왜란)까지  
近世朝鮮語 그 이후 현재까지  
위에서 “中期朝鮮語”에 해당되는 시기를 본고에서는 “중세한국어”라고 부르기로 한다.
- 2) 용례를 수집할 때에는 文獻研究會(1994)에 수록된 “본문”(권6, 9, 13, 19, 23, 24를 활자화한 것)을 이용하였다. 본고에서 용례를 제시할 때에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필요에 따라 영인본을 참조하여 수정하였다.
- 3) 이하의 기술에서는 이 “대격으로 간주되는 명사구”를 간단히 “목적어”라고 부

이유로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로 쓰인 최초의 散文 문헌이라는 점, “佛”, “經” 등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타나므로 환경을 대조하기 쉽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다른 자료에서 보이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三綱行實圖》<sup>4)</sup>도 보충자료로 이용하였다.

## 2. 《釋譜詳節》에서의 대격조사의 유무

수집한 용례에 대해서 대격조사의 유무를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여기서는 文體에 주목하여 본문과 주석, 그리고 본문을 지문과 대화문으로 나누어서 제시한다.

[표 1] 《釋譜詳節》에 나타난 목적어에서의 대격조사 유무

			대격조사 있음	대격조사 없음	소계
용례수	본문	대화문	923 (73.2%)	338 (26.8%)	1261 (56.0%)
		지문	406 (59.5%)	276 (40.5%)	682 (30.2%)
	주석	208 (66.7%)	104 (33.3%)	312 (13.8%)	
총계			1537 (68.2%)	718 (31.8%)	2255 (100%)

《釋譜詳節》에 나타난 목적어 중 30% 정도의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문체별로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대격조사가 없는

르기로 한다. 또 그 목적어를 지배하는 용언을 “술어”라고 부른다. 아래의 용례에서는 “法”이 목적어, “듣-(드롭)”이 술어에 해당된다.

ex. 法 드로뵤 술히 너겨 흐거든 (06,10b)

- 4) 《三綱行實圖》의 용례를 제시할 때, 약호로서 “三綱”으로 표시한다. 즉, 출전 표시가 (三綱 …)과 같이 표시되어 있으면 《三綱行實圖》의 용례이고 (19, …)와 같이 數字로 시작되면 《釋譜詳節》에서 가져온 용례이다.

목적어는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대화문에서 대격조사가 없는 목적어는 약 27%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목적어 혹은 술어의 측면에서 용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목적어의 관점에서 본 대격조사의 유무

#### 3.1.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

李珣鎬(1972:2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목적어가 인칭대명사인 경우 거의 모든 용례에 대격조사가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목적어가 인칭대명사인 용례는 모두 34개가 있었는데 대격조사가 없는 목적어는 다음 3개밖에 없었다.

- (1) ㄱ. 너 위하야 널오리라 (13,47a)  
    ㄴ. (如來) 너희들 위하야 오란 (劫)에 (難行) (苦行)하야 (23,09a)  
    ㄷ. 내 이제 (分明)히 너드려 널오리라 (19,04b)

이 용례 중 (1ㄱ, ㄴ)에 대해서는 술어가 “위하-”라는 점에서, 그리고 (1ㄷ)은 문법화 과정에 있는 “-드려”<sup>5)</sup>와 통합했다는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sup>6)</sup>

#### 3.2. 목적어 자체가 접미사를 포함한 경우

목적어 자체에 動名詞形成接尾辭 “-口” 등의 접미사가 포함된 경우,<sup>7)</sup>

- 
- 5) 본고에서는 “-드려”, “-더브러”와 같이 용언에서 유래한 격조사로 문법화하고 있는 형태들도 “술어”로 취급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 6) 술어가 “위하-”의 경우에 대해서는 4.1.5를 참조. 또한 여격조사 “-드려”는 53개의 용례 중, 대격조사가 있는 용례(“-르드려”)가 4개밖에 없었다.

거의 모든 용례에서 대격조사가 나타났다. 특히 다음 (2)과 같이 목적어에 “-口”이 포함된 용례는 54개가 있었는데, 그 중 대격조사가 없는 용례는 3개밖에 없었다.

- (2) ㄱ. 세헨 부테 (神尼) 닷고똥 날어시닐 줌즈코 (對答) 아니흐스보미오 (24,02b)  
 ㄴ. 法 드로똥 슬히 너겨 흐거든 (06,10b)
- (3) ㄱ. 놀애 츄 마름과 (06,10b주)  
 ㄴ. 싸흠 이기다 흐는 마리니 (24,23a주)

(3)처럼 대격조사가 없는 용례는 “츄”, “싸흠” 두 가지였는데 이들은 이미 하나의 파생명사로 사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목적어에 “-口”이 포함된 경우는 대격조사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술어의 형식과 대격조사의 유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4. 술어의 관점에서 본 대격조사의 유무

비슷한 목적어라고 해도 다음 용례와 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다.

- (4) ㄱ. (須達)이와 (舍利弗)와 (精舍)를 짓더니 (06,35a)  
 ㄴ. 이 (東山)을 사아 (如來) 위흐스바 (精舍)를 이르스바지이다 (06,24a)  
 ㄷ. (舍衛國)에 도라 와 (精舍) 지쑤 터홀 어드니 (06,23b)

위 (4)에서 모두 목적어 “精舍”가 사용되었는데 대격조사의 분포에 차이가 있다. 술어에 연결어미 혹은 종결어미가 통합된 (4ㄱ, ㄴ)에서는

7) 용례에 나타난 접미사로서는 “-口”, “-니/리”, “-기” 등이 있었다. “-니/리”에 대해서는 기원적으로 관형사형어미+형식명사라는 구조로 파악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시부[志部昭平](1990)를 따라 접미사로 취급하였다.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있으나 관형사형어미가 통합한 (4ㄷ)에서는 대격조사가 없다. 이러한 차이는 “精舍”뿐 아니라 다른 목적어에서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술어와 통합된 어미, 접미사에 대해서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4.1. 술어의 형식과 대격조사의 유무

술어의 형식<sup>8)</sup>에 따라서 목적어에서의 대격조사 유무를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 2] 술어의 형식으로 정리한 목적어에서의 대격조사 유무

	대격조사 있음	대격조사 없음	소계
종결어미	244 (88.4%)	32 (11.6%)	276 (100%)
연결어미	1202 (73.9%)	425 (26.1%)	1627 (100%)
관형사형어미	28 (17.5%)	132 (82.5%)	160 (100%)
총계	1474 (71.4%)	589 (28.6%)	2063 (100%)

  

	대격조사 있음	대격조사 없음	소계
접미사	46 (37.4%)	77 (62.6%)	123 (100%)

[표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술어와 통합한 어미에 따라 대격조사의 분포에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종결어미와 관형사형어미 사이에 보이는 양상은 對照的이라 할 수 있다. 술어에 종결어미 혹은 연결어미가 통합된 경우에는 대격조사가 있는 용례가 많은 데 비해 관형사형어미 혹은

8) 여기서 어미 분류는 시부[志部昭平](1990:583-589)를 따랐다. 다만 용언접미사 중 “-시-”(尊敬), “-습/습/줍-”(謙讓) 등은 제외하고 動名詞[語幹]形成接尾辭만 포함시켰다. 또 “-르씨니”, “-르쑤덩” 등, 기원적으로는 관형사형어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미 어미의 일부로 된 형태들은 역시 제외하였다.

용언접미사의 경우에는 대격조사가 없는 용례가 많다.

다음으로 술어와 통합한 어미·접미사마다 살펴보기로 한다.

#### 4.1.1. 술어에 관형사형어미가 통합된 경우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술어에 관형사형어미가 통합된 용례에서는 80% 이상의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없었다.

- (5) ㄱ. 저희 무례 (幻術) 잘하는 사르물 골와 (24,21a)  
 ㄴ. 쇠불 든 지비사 (一百) 스물 고디러라 (06,38a)

특히 (5ㄱ)과 같이 被修飾語(여기서는 “사름”)가 대격인 용례는 38개 있었는데 대격조사가 있는 목적어는 다음 1개밖에 없었다.

- (6) 큰 (神通力)과 (樂說辯力)과 (大善寂力)을 (得)헛옛는 고돌 보며 니르  
 는 마를 듣고 다 (信伏)헛야 조츠니라 (19,32a)

(6)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被修飾語에 대격조사가 있는 경우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은 “格的 重出”(李崇寧 1981:424)을 피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被修飾語에 주격조사나 구격조사가 통합된 경우<sup>9)</sup>에 비해 대격조사가 통합된 용례에서는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거의 나타나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격이 연속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4.1.2. 술어에 접미사가 통합된 경우

술어와 통합한 접미사별로 대격조사의 유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被修飾語에 주격조사가 통합한 용례(25개) 중, 대격조사가 없는 목적어는 5개 나타났다. 구격조사의 용례(9개) 중 대격조사가 없는 목적어는 4개 나타났다.



〔표 3〕 술어에 통합된 접미사별로 정리한 목적어에서의 대격조사 유무

	대격조사 있음	대격조사 없음	소계
-음	5 (8.3%)	55 (91.7%)	60 (100%)
-니, -리	19 (63.3%)	11 (36.7%)	30 (100%)
-디	21 (70.0%)	9 (30.0%)	30 (100%)
-기	0 (0.0%)	2 (100%)	2 (100%)
-돌	1 (100%)	0 (0.0%)	1 (100%)
합계	46 (37.4%)	77 (62.6%)	123 (100%)

여기서 動名詞形成接尾辭 “-음”이 통합된 용례에서는 대격조사가 있는 목적어가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 (7)은 대격조사가 없는 것, (8)은 대격조사가 있는 용례이다.

(7) 부터 맛나미 어려보며 (法) 드로미 어려보니 (06,11a)

(8) ㄱ. 빛과 소리와 … (法)과인 도흐며 구주물 아로미 (六識)이니 (13,39a주)  
 ㄴ. 네 (半身舍利)를 (請)호미 몬 흐리니 (23,07b)

(8ㄱ)에 대해서는 3.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적어 자체에 動名詞形成接尾辭 “-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으나 남은 (8ㄴ)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예외적인 용례로 볼 수 있다.

술어에 “-디”가 통합한 경우 대격조사가 있는 용례는 21개 나타났다. 이것은 “-음”이 통합한 경우와 전혀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디”가 통합한 술어에 이어진 서술어(“아니호-”, “몬호-” 등)를 보면, 서술어에 종결어미 혹은 연결어미가 통합한 경우에만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9) ㄱ. (增上慢)을 여회오 (正法)을 비웃디 아니호야 (魔)이 버디 아니 드외야 (09,15a)

- 나. (金)을 더 내디 말라 (06,26a)
- (10) ㄱ. (時節) 아닌 저기 밥 먹디 마롭과 (06,16b주)
- 나. 이 (法) (信)티 아니홀 줄 업스니 (13,62a)

(10)과 같이 “아니ㅎ-”, “말-” 등의 서술어에 접미사, 관형사형어미가 통합한 경우에는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없다. 결국 “-디”에 이어진 서술어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문법적인 형식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니”, “-리”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둔다. 기원적으로 관형사형어미와 형식명사가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 “-니”, “-리”를 본고에서는 접미사로서 취급하였으나 다른 접미사들과 비교해서 대격조사의 분포 양상이 다르다.

- (11) ㄱ. 또 (菩薩)이 몸과 술과 … (子息)과로 (布施)하야 (無上道)를 (求)호리도 보며 (13,19b)
- 나. 이 (法)을 (眞實)로 보느닌 (解脫)이라 호고 (23,16a)

“-니”, “-리”가 통합된 경우, 그것이 기원적으로 관형사형어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11)처럼 대격조사가 있는 용례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접미사로서 다른 접미사들과 비교해 보아도 성격이 약간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대격조사가 있는 목적어가 많이 나타난 용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4.1.3. 술어에 종결어미가 통합된 경우

종결어미가 술어에 통합한 용례에서는 대격조사가 없는 목적어가 다른 어미와 비교해서 적게 나타났다. 특히 술어 다음에 “ㅎ-”, “ㄷ-”, “니ㄹ-” 등의 서술어가 이어진 경우, 대격조사가 없는 용례가 10개 있었다.

- (12) ㄱ. (梵志)돌히 (仙人)스 (道理) 닛노라 호야 (24,25b)  
ㄴ. (拘尸城)의셔 (舍利) 다 논호습고 먼 닛 弟子 기드리노라 호야  
(23,58b)

이러한 술어를 引用節<sup>10)</sup> 내부에 있는 술어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종결어미 '-니라'가 통합된 용례를 들어 보면 (13)과 같다.

- (13) ㄱ. (王)이 짜해 업디디여 울오 (種種) (供養) 호습고 큰 (塔) 세니라  
(24,37a)  
ㄴ. 이 (太子) 낱 저기 아바님 (波斯匿)이 싸흔 이기시니라 (24,23a주)

위와 같이 술어에 “-니라”가 통합된 용례 중, 대격조사가 없는 용례가 5개 나타났는데 그 중 (13ㄱ)처럼 목적어가 “塔”, 술어가 “세-”와 같은 용례가 4개 출현하였다. 나머지 1개가 (13ㄴ)의 용례이다. 특정한 목적어, 혹은 술어에서 대격조사의 출현이 제한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개별 단어들에 대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sup>11)</sup>

#### 4.1.4. 술어에 연결어미가 통합된 경우

본고의 모든 용례 중에서 술어에 연결어미가 통합한 용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중 약 74%의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있다. 그러나 다음 [표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각 어미마다 대격조사의 분포에 차이가 있다.

10) 引用節 등 절의 구조에 대해서는 각주 (24)를 참조.

11) 술어 “세-”에 대해서는 《三綱行實圖》에서도 편차가 보인다. 자세한 설명은 각주 (21)을 참조.

[표 4] 목적어에서의 대격조사의 유무(술어에 연결어미가 통합한 경우, 일부)

	대격조사 있음	대격조사 없음	소계
-아/어	554 (71.4%)	222 (28.6%)	776 (100%)
-고	127 (51.6%)	119 (48.4%)	246 (100%)
-니	153 (90.0%)	17 (10.0%)	170 (100%)
-며	85 (78.7%)	23 (21.3%)	108 (100%)
-게	52 (88.1%)	7 (11.9%)	59 (100%)
-오디	43 (97.7%)	1 (2.3%)	44 (100%)
-면	41 (93.2%)	3 (6.8%)	44 (100%)

여기서 술어에 “-고”가 통합한 경우, 약 반 정도의 용례에서 대격조사가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른 연결어미, 특히 “-오디”나 “-면”의 경우에는 대격조사가 없는 용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여기서는 “-고”가 문장에서 나타내는 의미와 대격조사 유무의 관련을 살펴보고자 한다.

술어와 통합한 “-고”가 문장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鄭鉉淑(1996)에 따라서 분류하였다.<sup>12)</sup> 그 결과 다음 (14)와 같이 술어에 “-고”가 통합되어 <樣態>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49개의 용례 중 37개의 목적어에 대격조

12) 鄭鉉淑(1996:5)은 현대한국어의 “-고”가 문장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先行>, <原因理由>, <樣態>, <同時>, <並列>로 분류하였다. <釋譜詳節>의 용례에 대해 “-고”의 의미별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스카이[須賀井義教] 2003:22). 후건이 없어서 의미를 특정하지 못한 용례가 1개 있었다.

	대격조사 있음	대격조사 없음	합계
先行	71 (62.8%)	42 (37.2%)	113
並列	31 (57.4%)	23 (42.6%)	54
樣態	12 (24.5%)	37 (75.5%)	49
原因,理由	10 (41.7%)	14 (58.3%)	24
同時	2 (40.0%)	3 (60.0%)	5
합계	127	119	246

사가 없었다.<sup>13)</sup>

- (14) ㄱ. 한 (天子) | 모미 (黃金色)이오 白象 타고 (諸天子) 더블오 도한  
 풍류호고 햇 光에 빠여 내 을 흔 너브로 들어 늘 (23,27a)  
 ㄴ. (優婆鞠多) (尊者) | (一萬八千) (阿羅漢) 드리고 오나 늘 (24,23a)

또 “-고”가 <原因·理由>를 나타낼 때에도 60% 정도의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없다.

- (15) (善男子) (善女人)이 이 (法華經) 듣고 (隨喜) 흔 사르 민 (福)을 언 매 나  
 (得) 히 리 잇 고 (19,01a)

“-고”가 <並列>의 의미를 나타낼 때 대격조사가 없는 용례보다 대격조사가 있는 목적어의 용례가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고” 혹은 “-아/어”가 이어져서 동작이 열거되는 경우, 대격조사가 없는 목적어가 몇 개 나타났다.

- (16) ㄱ. (須達)이 (塔) 세 오 (塋) 짓 고 (種種) (莊嚴) 호 고 (供養) 흐 습 더 라  
 (06,44b)  
 ㄴ. 내 옷 니 피 고 내 (冠) 쓰 이 고 내 (宮)의 드려 풍 류 흥 사 름 피 호  
 아 ㄱ 장 즐 기 게 하 라 (24,27b)

(16)과 같은 경우는 李崇寧(1981)이 지적한 “句를 이루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어떤 연결어미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떤 “句”를 이루는 경우에 대격조사가 안 나타나는지 더 검토해 볼 필요

---

13) <樣態>를 나타내는 “-고”의 용례 중 (14ㄴ)과 같이 술어가 “드리-”의 경우는 16에 있었는데 모두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鄭鉉淑(1996:45)에 의하면 현대 한국어의 “데리다”는 <同伴動詞>로 분류되는데 “-고”와 통합한 경우 모두 <樣態>의 뜻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술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관련시켜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 있을 것이다.<sup>14)</sup>

일단 여기서 확인한 것은 “-고”가 술어와 통합하고 <樣態>의 뜻을 나타낼 때 대격조사가 없는 목적어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6장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4.2. 술어가 “위호-”의 경우

여기서는 대격조사가 없는 목적어가 비교적 많이 나타난 “위호-”에 대해서 살펴본다.

술어가 “위호-”의 용례는 모두 65개, 그 중 대격조사가 있는 목적어는 6개밖에 없었다. 술어가 “위호-”의 경우 다음 (17)과 같이 그 목적어에는 대격조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17) 내 (世尊) 위호스바 (精舍)를 호마 짓스보니 (06,38a)

(18) ㄱ. (溫和)히 사라 (千萬) 뉘예 (子孫)이 니셔 가물 위호시니 (06,07b)

ㄴ. 한 사르미 날 위호야 (禮數)호리라 호더라 (06,29a)

ㄷ. 이런 (衆生)을 위호야 (大慈悲心)을 니르와도라 (13,57a)

(18)은 대격조사가 있는 용례인데, (18ㄱ)은 목적어에 “-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18ㄴ)은 목적어가 인칭대명사라는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대격조사가 나타난 6개 용례 중, 목적어가 일반 명사인 용례는 (18ㄷ)과 같이 “衆生”의 경우밖에 없었다.<sup>16)</sup>

14) “-아/어”가 통합한 술어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용례가 있으나 아직 정리가 충분하지 않다.

ex. 일후미 (救脫)이라 호샤리 (座)에서 니르샤 울호 얻게 메맞고 울호 무를 우려 몃 구퍼 습掌호야 부터뜨 니르샤디 (09,29ab)

15) 이러한 경향은 다른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三綱行實圖》에서 “위호-”는 12개가 나타나는데 그 중 대격조사가 있는 목적어는 2개밖에 없다. 그 2개는 모두 목적어가 대명사의 용례이다.

16) 다음과 같은 용례도 있기 때문에 대격조사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 5. 《三綱行實圖》에 보이는 대격조사의 분포 양상

## 5.1. 술어의 관점에서 본 대격조사의 유무

여기서 자료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三綱行實圖》에 보이는 대격조사의 유무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釋譜詳節》과 마찬가지로 전체 용례수를 술어의 형식별로<sup>17)</sup>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술어의 형식으로 정리한 목적어에서의 대격조사 유무:《三綱行實圖》

	대격조사 있음	대격조사 없음	소계
종결어미	137 (68.5%)	63 (31.5%)	200 (100%)
연결어미	444 (49.4%)	454 (50.6%)	898 (100%)
관형사형어미	4 (8.5%)	43 (91.5%)	47 (100%)
①소계	585 (51.1%)	560 (48.9%)	1145 (100%)
	대격조사 있음	대격조사 없음	소계
②접미사	2 (6.7%)	28 (93.3%)	30 (100%)
전체 총계(①+②)	587 (50.0%)	588 (50.0%)	1175 (100%)

전체적으로 볼 때 대격조사가 반 정도의 용례에 나타나 있어 《釋譜詳節》의 경우와 양상이 다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술어에 관형사형어미가 통합된 경우, 그리고 접미사가 통합된 경우에는 거의 대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술어에 종결어미, 연결어미가 통합한 경우, 대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釋譜詳節》보다 더 강하다는 점이다.<sup>18)</sup>

ex. (衆生) 위호야 비록 (三乘)을 니르실뿐덩 (實)은 (一乘)뿐니라 (13.59a주)  
17) 어미의 분류는 [표2]와 같은 방법을 취하였으나 접미사 “-디”에 한하여 그것에 이어진 서술어의 형식별로 분류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4.1.2를 참조.

다음으로 술어의 형식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 5.1.1. 술어에 관형사형어미·접미사가 통합된 경우

술어에 관형사형어미 혹은 접미사가 통합된 용례 중,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나타난 용례는 다음과 같다.

- (19) ㄱ. 王이 날 求<sub>ᄃᆞ</sub>샤<sub>ᄃᆞ</sub>던 樣子<sub>ᄃᆞ</sub> | 니 (三綱烈06b)  
 ㄴ. 天下에서 날 알리 이시리라 ㅎ더니 (三綱忠26b)
- (20) ㄱ. 현마 어린들 주구<sub>ᄃᆞ</sub>던 저<sub>ᄃᆞ</sub>른 고<sub>ᄃᆞ</sub>돌 모<sub>ᄃᆞ</sub>름 것 아니어니와 (三綱孝23b)  
 ㄴ. 元入 兵馬 | 潭州 | 를 ㅅ<sub>ᄃᆞ</sub>아 城을 ㅎ<sub>ᄃᆞ</sub>마 앞<sub>ᄃᆞ</sub>일 저<sub>ᄃᆞ</sub>기 (三綱忠23a)  
 ㄷ. 齊 莊公이 菑<sub>ᄃᆞ</sub>를 ㅅ<sub>ᄃᆞ</sub>탕 저<sub>ᄃᆞ</sub>기 (三綱烈03a)  
 ㄹ. 오직 죽고사 내 남<sub>ᄃᆞ</sub>지<sub>ᄃᆞ</sub>닐 背<sub>ᄃᆞ</sub>叛 아니<sub>ᄃᆞ</sub>홀 ㅅ<sub>ᄃᆞ</sub>니라 (三綱烈23b)

(19)는 술어에 접미사가 통합된 예, (20)은 관형사형어미가 통합된 용례이다. (19)의 경우 목적어 자체가 대명사이므로 대격조사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20)의 용례 중, (20ㄴ, ㄷ)은 술어가 “-ᄃᆞ 저기”라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관형사형어미가 통합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의심스럽다. (20ㄷ)의 “-ᄃᆞ ㅅ<sub>ᄃᆞ</sub>”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하나의 형식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관형사형어미가 통합된 경우와 따로 취급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용례수가 적어 결론을 내리기에 는 부족하므로 여기서는 용례를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

### 5.1.2. 술어에 종결어미가 통합된 경우

[표5]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술어에 종결어미가 통합된 경우, 《三綱行實圖》에서는 대격조사가 없는 용례가 《釋譜詳節》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釋譜詳節》과 다른 양상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 이것은 《三綱行實圖》가 가지고 있는 口語的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종결어미 “-다”(평서형), 혹은 “-라”(명령형)가 술어에 통합된 용례에서 대격조사가 없는 목적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술어에 종결어미가 통합되고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없는 용례 가운데 반 정도를 차지한다.

- (21) ㄱ. 對答호되 뒤다가 나도 아비 다모리라 하야닐 (三綱孝13a)  
 ㄴ. 또 남지너거귀 머굴 것 보내더라 (三綱烈08a)
- (22) ㄱ. 恭靖大王이 보내시고 집 完護하라 하시니라 (三綱忠34b)  
 ㄴ. 목 숲 門의 紅門 세라 하시니라 (三綱烈32a)

(21)은 술어에 평서형어미 “-다”가 통합된 예,<sup>19)</sup> 그리고 (22)는 명령형어미 “-라”가 통합된 용례이다. (21ㄱ), (22)는 절의 구조에서 볼 때 引用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라”가 통합된 명령문은 대부분 대화문에 쓰이므로 근본적으로는 모두 引用節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21ㄴ)은 主節의 목적어이므로 대격조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다. 술어가 “보내-”인 다른 용례들 중에서도 대격조사가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sup>20)</sup> 다른 용례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술어에 종결어미 “-니라”가 통합된 경우는 “-다”, “-라”와 비교하여 그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많이 나타난다. 술어에 “-니라”가 통합된 용례 36개 중, 대격조사가 없는 용례는 7개가 나타났다.

- (23) ㄱ. 夢周 | 제 섬기논 더 두 뜰 아니 가지니라 하야 (三綱忠33b)  
 ㄴ. 그 집 門에 紅門 세니라 (三綱孝03a)

引用節의 목적어로 쓰인 (23ㄱ) 역시 (21ㄱ), (22)의 용례와 마찬가지로 대격조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23ㄴ)은 (21ㄴ)과 같이 主節에

19) 예문에서는 그 이형태인 “-라”로 실현되었다.

20) 다음은 술어에 연결어미가 통합된 용례인데 구문 상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곳겨지비그에 자본 것 만히 보내더니 (三綱烈02a)

나타난 목적어임에도 불구하고 대격조사가 없는 용례이다.<sup>21)</sup>

여기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술어에 “-니라”가 통합된 경우에 “-다”, “-라”가 통합된 용례보다 대격조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 술어가 主節에 많이 쓰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引用節에서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은 경향은 《釋譜詳節》보다 《三綱行實圖》가 더 강한데 이러한 경향 역시 《三綱行實圖》의 口語的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 5.1.3. 술어에 연결어미가 통합된 경우

《三綱行實圖》에서 술어에 연결어미가 통합된 경우, 대격조사가 없는 목적어가 《釋譜詳節》보다 더 많이 나타나 《釋譜詳節》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술어에 “-고”, “-아/어”가 통합된 용례에서는 반 이상의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4.1.4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술어에 “-고”가 통합되어 <樣態>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대격조사가 없는 용례가 많이 나타났다. 《三綱行實圖》에서도 “-고”가 <樣態>의 뜻을 나타낸다고 간주되는 용례가 50개 있었는데, 그 중 대격조사가 없는 목적어가 40개를 차지하였다.

- (24) ㄱ. 사오나본 옷 넙고 環刀 가지고 깊 2새 셔어서 울어늘 (三綱孝04a)  
 ㄴ. 崔氏 子息들 안고 피해 가아 수뻬거늘 (三綱烈31a)

이러한 양상은 《釋譜詳節》과 비슷한데 《三綱行實圖》에서는 대격조사가 없는 경향이 더욱 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어”가 술어에

21) 다만 (22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술어가 “세-”의 용례에서는 대부분 대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술어가 “세-”인 16개 용례 중,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나타난 용례는 2개밖에 없었는데 (22ㄴ)이나 (23ㄴ)과는 달리 “王氏를 도로 세여시늘”(三綱忠33a), “恢復稟 議論을 세여”(三綱忠22b)처럼 추상적인 동작을 나타낸다. 술어에 따른 대격조사의 분포 양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된 경우가 그렇다. “-아/어”의 용례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25) 7. 님금 업시운 막스물 가져 상네 물 타아 大闕 門에 드나들며 (三網忠32a)

나. 바미 뽏 가운데 머리 조사 비더니 (三網孝22a)

(26) 王氏 불써 남기 목 띠여 주그니라 (三網烈26b)

(25)는 <樣態>를 나타내는 “-아/어”<sup>22)</sup>의 용례, (26)은 <手段·方法>을 나타내는 “-아/어”의 용례이다. “-아/어”가 <樣態>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많다. 또한 (26)은 “-아/어”가 <手段·方法>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용례처럼 목적어가 “목”, 술어가 “띠-”인 경우에는 모든 용례(11예)에서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27) 宋人의 썩리 낚진 어러 그 남지니 모던 病을 어더늘 (三網烈04a)

위의 (27)은 “-아/어”가 <先行>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례이다. “-고”에 대한 것이지만 《釋譜詳節》에서 “-고”가 <先行>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60% 이상의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나타났다. 그러한 결과로 볼 때, (27)의 용례에서도 대격조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렇지 않다. 따로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三網行實圖》에만 보이는 현상인지 지금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둘째, 술어에 “-니”, “-오디”, “-르썩” 등이 통합된 경우, 대격조사가 없는 용례가 적게 나타났다. 이것 역시 《釋譜詳節》과 거의 비슷한 경향이다. 대격조사가 없는 용례를 몇 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22) “-아/어”가 문장에서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는 현대어를 대상으로 논의한 權在淑(1994)을 참조하였다.

- (28) 義홍 사르문 이시며 업소르로 므숨 고티디 아니흐느니 (三綱烈11b)  
 (29) ㄱ. 數十年을 어미 섬고디 怒흐는 ㄴ고졸 집 사르미 몸 보더니 (三綱孝26a)  
 ㄴ. ㄱ 거슨대 ㄴ 불 버히고 ㅅ 호 발 버휴디 손지 듣디 아니커늘 (三綱烈33a)

술어에 “-르씩”가 통합된 용례에서는 모두 대격조사가 나타났다. 위의 용례 중 (29)는 연결어미 “-오디”가 통합된 용례인데 다음 (30)과 같은 용례에서는 대격조사가 나타난다.

- (30) 李氏 그를 지수디 昔年에 無偶去흐니 … (三綱烈12a)

(30)은 “-오디” 뒤에 글의 내용이 이어져 있는 데 비해 (29)는 그렇지 않다. (29)의 용례에서 “-오디”는 말하자면 [역접](李賢熙 1994:70)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어 (30)의 “-오디”와는 다른 구조를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두 가지 양상을 종합해 보면 역시 절의 구조상 차이가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음 (31)와 같이 [전제]의 뜻을 가진 “-니”(李賢熙 1994:63)의 경우, 從屬節이라 하더라도 主節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니”는 의미단락을 만드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 (31) 吳二 어미를 至極 孝道흐더니 ㄴ 神靈이 꾸메 닐오디 (三綱孝29a)

여기까지 술어에 연결어미가 통합된 용례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검토해 보았다. 일단 “-고”, “-아/어” 등이 술어에 통합된 경우, 그리고 “-오디”, “-니”, “-르씩” 등이 술어에 통합된 경우는 각각 대격조사의 유무에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는 “-고”나 “-아/어”가 작은 從屬節을 이루는 데에 비해 “-오디”, “-니” 등은 從屬節이라 하더라도 더 큰

절을 이룬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오디”나 “-니” 등은 의미단락을 만드는 역할도 하고 主節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격조사의 유무에 대해 목적어의 관점에서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 5.2. 목적어의 관점에서 본 대격조사의 유무

《釋譜詳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목적어 자체가 “-口” 등의 접미사를 포함한 경우 거의 모든 용례에서 대격조사가 나타났다. 《三綱行實圖》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이는데 특히 접미사 “-口”을 포함한 27개 용례 중, 대격조사가 없는 목적어는 4개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 (32) ㄱ. 枋得이 사흙 계워 閩中에 逃亡하야 드러 니거늘 (三綱烈19a)  
 ㄴ. 나랏 붓그려봄 시수물 제 所任 사마 흘씨 (三綱忠22b)

(32)는 목적어 자체가 접미사 “-口”을 포함하면서 대격조사가 없는 용례들이다. (32ㄱ)과 같이 목적어가 “사흙(혹은 싸흙)”인 경우가 모두 3개 있었는데 다 대격조사가 없었다. 그런데 이것은 3.2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나의 파생명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목적어가 접미사 “-口”을 포함한 경우 대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은 용례는 (32ㄴ) 하나가 된다. (32ㄴ)에서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없는 것은 술어에 또 접미사 “-口”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목적어가 “-口”을 포함한 용례에 관해서는 《三綱行實圖》에서 예외없이 대격조사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인데, 《釋譜詳節》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용례에서 대격조사가 나타났다. 목적어가 대명사인 46개 용례 중, 대격조사가 나타나지 않은 용례는 다음 4개이다.

- (33) ㄱ. 내 너 못 주기는 이룰 애드라 ᄒ가니 (三綱忠16b)  
 ㄴ. 내 나라 爲ᄒ야 도죽 티다가 너 못 배튼 이룰 츠기 너기노니 (三綱忠13b)  
 ㄷ. 엇데 너 조차 反ᄒ리오 ᄒ고 (三綱忠16b)  
 ㄹ. 孔子人 弟子ㅣ 더 보고 즉자히 도라 가아 (三綱孝04b)
- (34) 엇데 너를 조차 反ᄒ리오 (三綱忠13b)

(33ㄱ, ㄴ)에 대해서는 술어에 관형사형어미가 통합된 것으로 대격조사의 유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33ㄷ, ㄹ)과 같은 경우 대격조사가 없는 이유를 확실히 알 수가 없다. 특히 (33ㄷ)의 경우, (34)와 같은 용례도 있으므로 더욱 설명하기가 어려운 듯하다.<sup>23)</sup>

## 6. 문장의 계층구조와 대격조사의 유무

[표2]에서 대격조사의 유무에 대한 경향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문장을 이루는 절의 구조<sup>24)</sup>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종결어미가 통합한 술어를 主節의 서술어로 보고 그 이외의 어미·접미사가 통합한 술어를 從屬節의 서술어로 파악하면, 대격조사가 없는 목적어는 從屬節, 특히 冠形節과 名詞節에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용례를 보자.

23) 여기서 대격조사가 없는 용례가 대부분 목적어 “너”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해 둔다. 《釋譜詳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이는데 특이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24) 노마히테키(1996:140)에 따라서 현대한국어에서 절의 종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主節: 문장을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술어를 가지는 절  
 並列節(對等節 혹은 等位節): 주절과 대등한 자격을 가지는 절  
 從屬節(從位節 혹은 副文): 상위문에 종속된 절  
 副詞節(連用節 혹은 狀況節): 용언을 수식하는 절  
 名詞節: 명사의 기능을 가지는 절  
 冠形節(形容詞節 혹은 連體節): 체언을 수식하는 절  
 引用節: 인용된 절

- (35) ㄱ. (琰魔王)이 사롬 (罪) 주는 (法) ㄱ숨아논 (王)일씨 (09,30a주)  
 ㄴ. (琰魔王)이 [[ 사롬 (罪) 주는 ] (法) ㄱ숨아논 ] (王)일씨

(35ㄱ)은 (35ㄴ)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데 冠形節 중에서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名詞節을 이루는 접미사 “-음”도 똑같이 설명된다.

- (36) (邪曲)흔 (道理)를 (信)햏야 [ (正)흔 (法) ㄱ락초미 ] 어럽더니 (06,21b)

(36)에서는 名詞節에 앞선 부분, 즉 “邪曲흔 道理를 信햏야”에서는 “道理”에 대격조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名詞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격조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절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37) 이 (比丘) | [ (經典) 닐거 외오몰 ] (專主)햏야 아니햏고 (19,29b)

술어의 형식을 분류할 때 목적어의 바로 뒤에 있는 술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위 (37) 같은 경우는 연결어미가 통합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經典”에 대격조사가 없는 것은 “經典 닐거 외오몰”이라는 하나의 名詞節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sup>25)</sup>

또 연결어미가 통합되어 從屬節, 특히 副詞節을 이루는 경우 각 어미마다 대격조사의 유무에 차이가 있다([표4] 참조). 특히 “-고”가 술어에 통합한 경우, 대격조사가 없는 목적어가 반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고”가 <樣態>의 의미를 나타낼 때, 즉 樣態節을 이루는 경우 대격조사가 없는 목적어가 가장 많았다. “-고”가 <竝列>의 뜻을 나타낼 때에는 대격조사가 있는 목적어가 많았는데, 여기서 樣態節, 竝列節은 절의 계층구조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sup>26)</sup>

25) 참고로 “妙法蓮華經” 한문을 보면 「不專讀誦經典」이라고 되어 있다.

- (38) ㄱ. [ [ 樣態節 = 하위절 ] 主節 혹은 다른 從屬節 = 상위절 ]  
 ㄴ. [ 並列節 ] [ 主節 혹은 다른 從屬節 ]

(38ㄱ)에서 보듯이 樣態節은 절의 계층에서 하위에 속한다. 즉 상위 절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8ㄴ)과 같이 並列節은 절의 계층에서 하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sup>27)</sup> 이것은 다른 연결어미, 예를 들면 “-면”이나 “-오더”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연결어미들은 (38ㄴ)에 가까운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冠形節·名詞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의 계층구조에서 더 작은 절, 혹은 더 하위에 속하는 절의 경우 그 내부에 있는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가장 큰 절이라고 간주되는 主節의 목적어에는 대격조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sup>28)</sup>

## 7. 결론

지금까지 중세한국어에서의 대격조사 유무에 대해 목적어와 술어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목적어가 인칭대명사의 경우, 그리고 목적어에 용언접미사가 통합된 경우에는 대부분 대격조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혔다. 본고에서는 문장을 이루는 절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검토를 시도하였는데, 문장에서 하위에 속하는 절, 즉 관형절과 명사절 내부에 있는 목적어에 대격조사가 없는 점을 밝혔다.

26) 절의 包攝關係에 대해서는 노마히데키(2002:44-51)를 참조할 것.

27)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16ㄱ)과 같은 용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용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앞으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8) 李南淳(1988:32)은 현대한국어를 대상으로 부정격 출현에 관해서 부정격은 S(문장), VP<sub>0</sub>(최상위 VP), NP(명사구) 아래에서 가장 먼저 자매관계를 이루는 체언성분에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고에서 취급한 용례 중, 主節의 목적어에는 대부분 대격조사가 나타나 현대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자료를 《釋譜詳節》, 《三綱行實圖》로 한정하여 용례를 검토하였는데 이 두 가지 자료만 해도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口語的인 성격의 차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인지 더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佛典 諺解 등 다른 성격을 가진 자료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절의 구조라는 점에서 개별 어미에 대한 검토, 특히 연결어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결어미별로 대격조사의 유무뿐만 아니라 격표지, 성분의 출현 등 여러 현상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절 구조의 전체 체계를 그려 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영근(1995), 《단어·문장·텍스트》, 서울: 한국문화사.  
\_\_\_\_\_(1997), 《개정판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서울: 집문당.  
고노[河野六郎](1955), 朝鮮語, 《世界言語概說》 下卷, 東京: 研究社, 357-439.  
權在淑(1994), 現代朝鮮語의 接續形Ⅲ(-아/-어)について, 《Lingua》 第5號, 東京: 上智大學一般外國語, 73-97.  
김승곤(1992), 《국어토씨연구》, 서울: 서광학술출판사.  
金英培(1972), 《釋譜詳節第二十三·四注解》, 서울: 一潮閣.  
김용구(1989), 《조선어문법》,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南基心·高永根·李玃雙編(1975), 《現代國語文法》, 서울: 啓明大學校出版部.  
노마[野間秀樹](1993), 現代朝鮮語의 對格と動詞의 統辭論, 《言語研究》 Ⅲ, 東京: 東京外國語大學語學研究所, 79-168.  
노마히데키(1996), 한국어 문장의 계층구조, 《언어학》 제19호, 서울: 한국언어학회, 133-180.  
\_\_\_\_\_(2002),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서울: 태학사.  
류구상 외(2001), 《한국어의 목적어》, 서울: 도서출판 月印.  
文獻研究會(1994), 《釋譜詳節 文法形態 索引集》, 서울: 太學社.  
미나미[南不二男](1974), 《現代日本語の構造》, 東京: 大修館書店.

- 閔賢植(1982), 現代國語의 格에 대한 研究: 無標格의 定立을 위하여, 《國語研究》 第49號, 서울: 國語研究會.
- 스카이[須賀井義教](2003), 中期朝鮮語における對格: 對格語尾の有無と文の階層構造, 單語結合, 《朝鮮學報》 第187輯, 天理: 朝鮮學會, 1-45.
- 시부[志部昭平](1986-87), 中期朝鮮語1-4, 《基礎ハングル》 8-11, 東京: 三修社.
- \_\_\_\_\_[志部昭平](1990), 《診解 三綱行實圖研究》, 東京: 汲古書院.
- 安秉禧(1966), 不定格(Casus Indefinitus)의 定立을 위하여, 《東亞文化》 第6輯(南基心·高永根·李翊燮編(1975)에 再錄).
- \_\_\_\_\_(1992), 《國語史資料研究》, 서울: 文學과知性社.
- \_\_\_\_\_.李珪鎬(1990), 《中世國語文法論》, 서울: 學研社.
- 柳東碩(1990), 助詞省略,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서울: 東亞出版社, 233-240.
- 李珪鎬(1972), 中世國語의 對格研究: 對格主題化의 試論으로, 《國語研究》 第29號, 서울: 國語研究會.
- 李基白(1975), 國語 助詞의 史的 研究, 《語文論叢》 9·10합병호, 대구: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7-92.
- \_\_\_\_\_(1977), 格助詞의 省略에 對한 考察, 《語文論叢》 11호, 대구: 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7-28.
- 李南淳(1988), 《國語의 不定格과 格標識 省略》, 서울: 탐출판사.
- \_\_\_\_\_(1998), 《格과 格標識》, 서울: 도서출판 月印.
- 李崇寧(1981), 《改定增補版 中世國語文法》, 서울: 乙酉文化社.
- 이은경(1999), 한국어에서 명사류가 조사 없이 나타나는 환경에 대하여, 제157회 朝鮮語研究會 발표요지.
- 李賢熙(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서울: 新丘文化社.
- 鄭鉉淑(1996), 現代朝鮮語接續形-고について: その意味·用法をめぐって, 《朝鮮學報》 第161輯, 天理: 朝鮮學會, 1-93.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형태론》, 서울: 샘문화사.
- 洪允杓(1990), 格助詞,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서울: 東亞出版社, 221-232.

[110-5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승동199-1 제2국제회관 302호실]

전화번호 : 011-9261-7512

E-mail : wigyo@hotmail.com

접수 일자 : 2004. 2. 26.

게재 확정 일자 : 2004. 4. 30.